

M.O.P
MAGAZINE

M.O.P
DOCUMENTARY
MAGAZINE

ISSUE NO.6
M.O.P

December 2025

M

MAGAZINE VOL.06

M.O.P materials

DEC 2025



SECOND HALF OF 2025

CONTENTS

Cover Story 04

M : Materials 06

Material Spotlight 08

보이지 않는 층이 만드는 차이 10

O : Occasion 12

Event Highlight 14

품질·안전·환경 교육 16

Refresh Day 18

P : People 20

Employee Spotlight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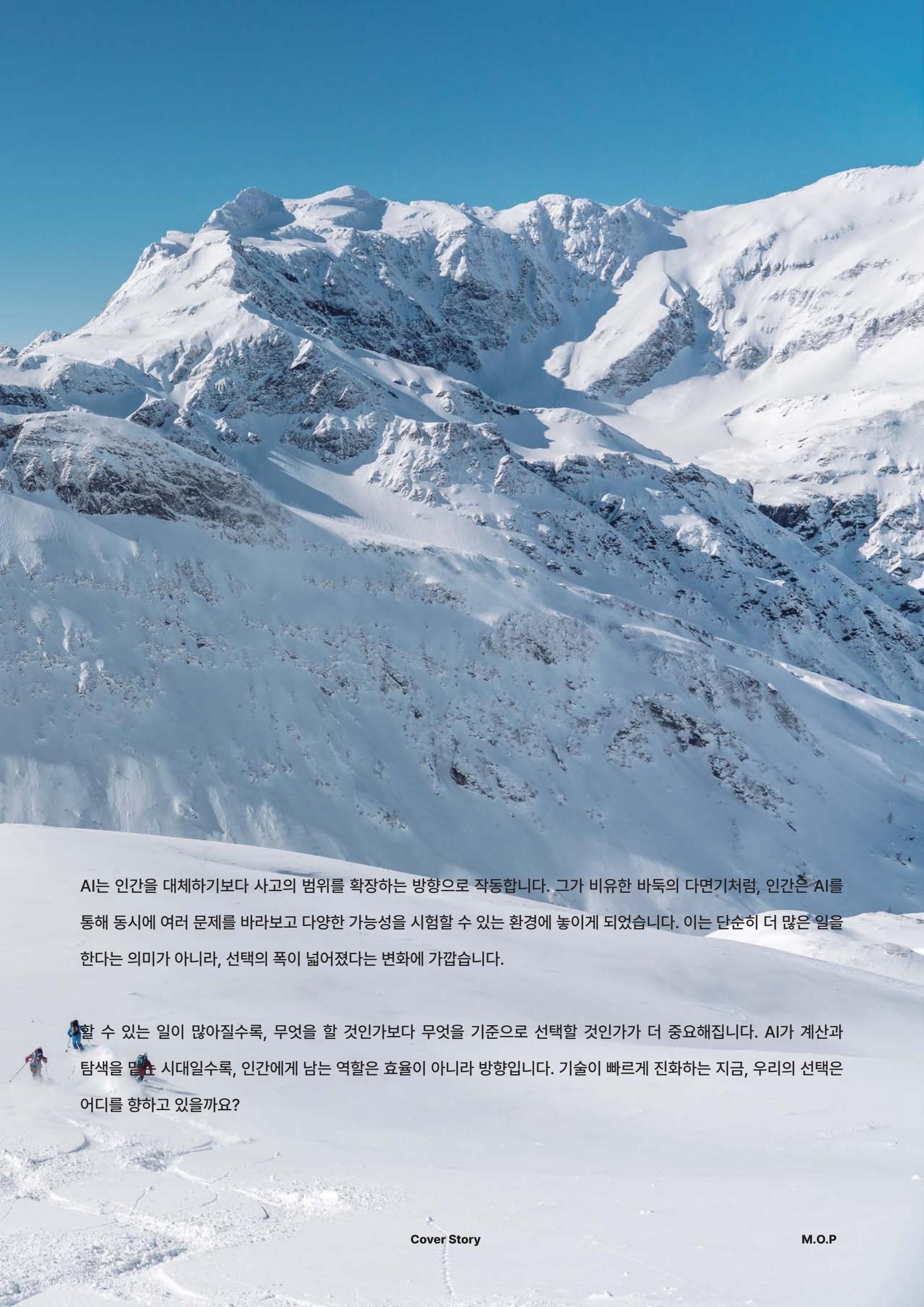
인터뷰: 응용소재사업본부 이문호 연구원 24

Break Time (쉬어가는 코너)	28
엠오피 '인생 책' 페어링	30
맛따라 멋따라 계절따라	32
Crossword Puzzle	34
Editor's Note (편집자의 글)	36



2025년 하반기,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가능성의 기술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이자 미래 사회를 연구해 온 송길영 작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딥마인드 연구팀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 구조를 밝히기 위해 수십 년이 걸리던 난제를, AI는 몇 년 만에 대부분 해결해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거대한 계산 능력이 단숨에 돌파한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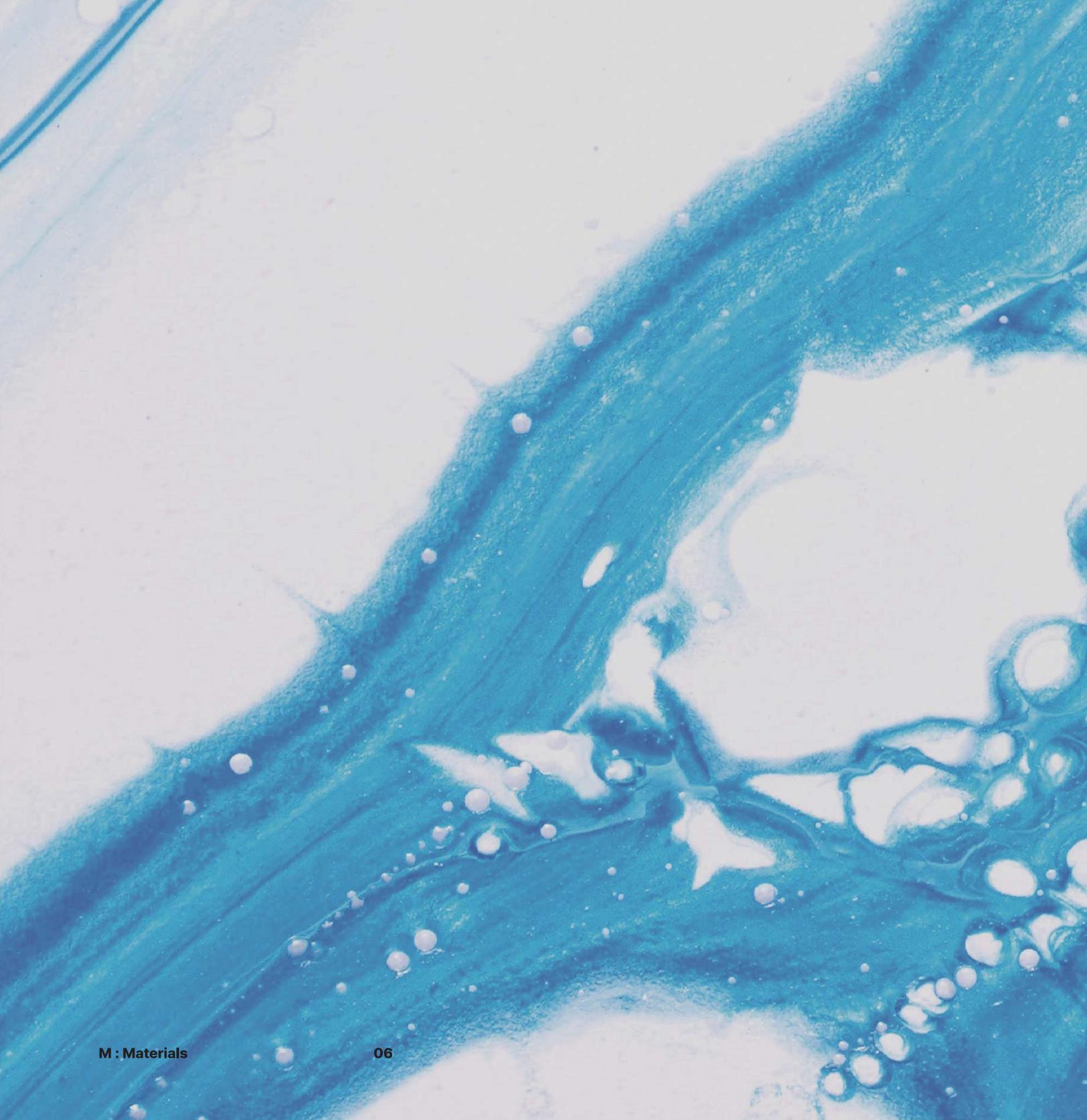
그러나 그는 이를 '인간의 역할 축소'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AI와 협업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더 많은 끈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어려운 문제인지 정의하고, 그 문제를 AI에게 맡길지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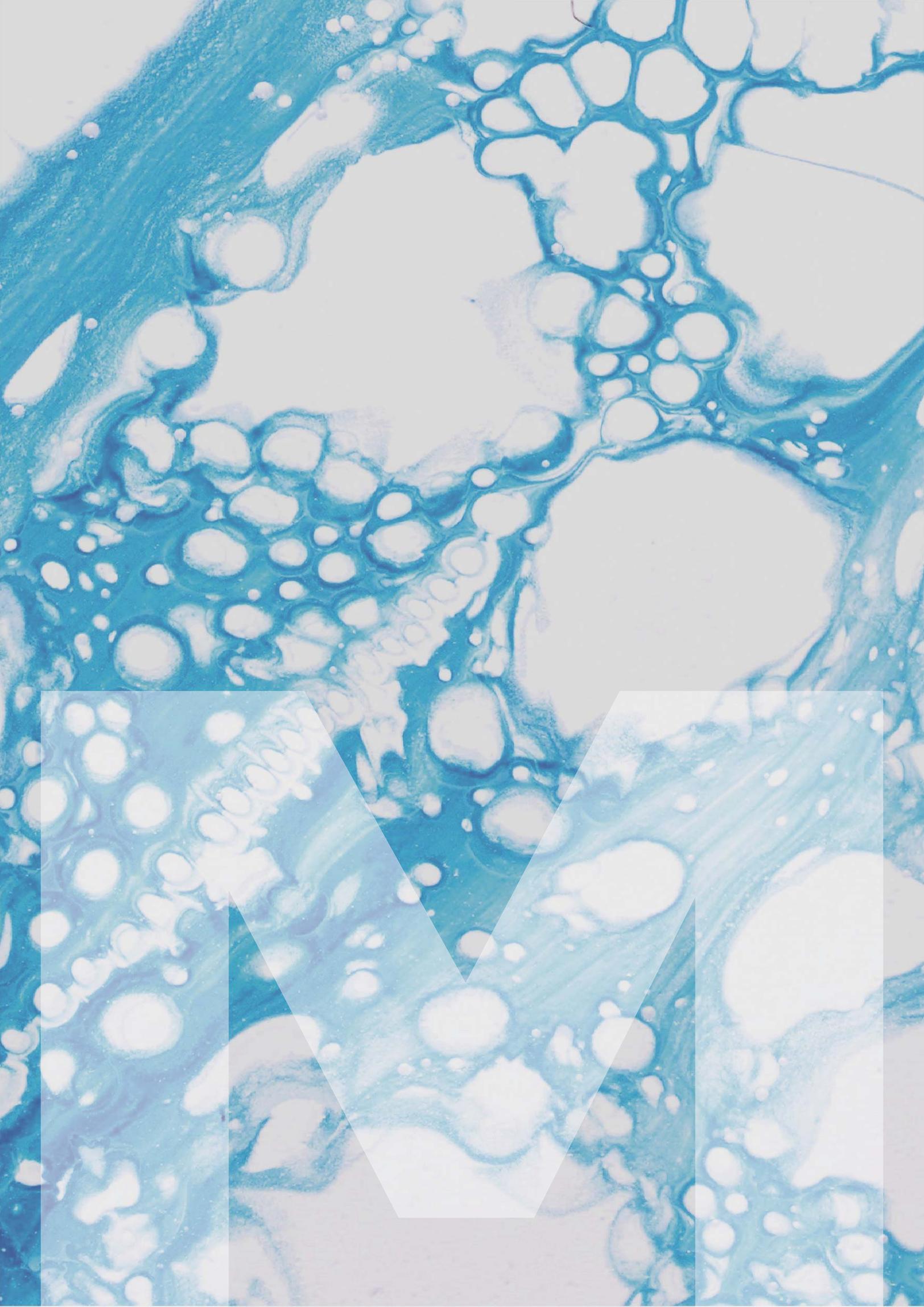


AI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가 비유한 바둑의 다면기처럼, 인간은 AI를 통해 동시에 여러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변화에 가깝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AI가 계산과 탐색을 맡는 시대일수록, 인간에게 남는 역할은 효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지금, 우리의 선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M.O.P MATERIALS
M.O.P MATERIALS
M.O.P MATERIALS
M.O.P MATERIALS





Material Spotlight

01 보이지 않는 층이 만드는 차이





기능성 코팅 소재

기능성 코팅은 단순히 표면을 덮는 기술이 아니라, 소재의 성능과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엠오피는 기능을 설계하는 하나의 소재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명성, 내열성, 내식성, 절연성 등 각 산업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표면에 구현하기 위해 기능성 코팅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층이 만드는 차이

이번 Materials 코너에서는 기존에 소개된 바 있는 CLAVILUX를 옴오피의 기능성 코팅 출발점으로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CLAVISH를 통해 기능성 코팅 소재가 확장되는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CLAVILUX : '빛'을 다루는 기능성 코팅의 시작

CLAVILUX는 옴오피 기능성 코팅 소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굴절률을 중심으로 설계된 CLAVILUX는 광학 특성이 중요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밀 기판 분야에서 투명성과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경화 조건과 공정에 따라 굴절률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 저온에서도 안정적인 박막 형성, 그리고 우수한 기판 접착력은 CLAVILUX가 단순한 코팅제를 넘어 공정 친화적인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의 CLAVILUX는 '빛을 제어하는 코팅'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LAVISH : 고열성·내구성 기능성 코팅

CLAVISH는 옴오피 기능성 코팅 소재 중 열 안정성과 내구성을 타겟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나노 산화티타늄(TiO_2) 기반의 유기 티타늄 복합체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온(약 120°C)부터 고온(800°C 이상)까지 기재에 따라 경화 조건을 조절할 수 있으며, 농도와 공정 조건에 따라 박막 두께 역시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속 기재의 부식과 열화를 억제하고, 화학물질·염수·고온 노출 환경에서도 기재를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전기 절연 특성을 통해 누설 전류나 표면 방전 억제에도 효과적인 기능성 코팅 소재입니다.

CLAVISH는 고내열·내식 환경에서 기재를 보호하는 기능성 코팅으로, 에너지·산업 설비·고온 공정 분야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M.O.P OCCASION
M.O.P OCCASION
M.O.P OCCASION
M.O.P OCCASION





Event Highlight

01 품질·안전·환경 교육

02 Refresh Day



품질·안전·환경 교육

화학물질 경고표지 및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교육

엠오피는 제품 경쟁력의 근간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품질 시스템에서 비롯된다는 원칙 아래, 품질·안전·환경 교육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1
화학물질 경고표지 및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교육

02
화학물질 경고표지 및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교육 중인
품질팀 김광호 차장



신규·최초 화학물질 등록 및 사전위험성 평가 교육

마지막으로 진행된 교육은 신규·최초 화학물질 등록 및 사전위험성 평가 교육이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 필요한 등록 절차와 함께, 사전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03

신규·최초 화학물질 등록 및
사전위험성 평가 교육



04

신규·최초 화학물질 등록 및
사전위험성 평가 교육

왼쪽부터 이윤희 책임 연구원, 김태현 주임 연구원, 김광호 차장



Refresh Day

지난 12월 12일 금요일,
임직원들과 함께한 '엠오피 Refresh Day'가
즐거운 웃음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볼링 게임!

5개의 팀이 상금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웃음과 응원이 오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동료의 의외의 스트라이크를 연신 터트리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웃음을 선사하며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미처 몰랐던 동료들의 승부욕과 유머 감각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호씨의 점수는 ... 과연?!!



베스트 볼링 포즈상 수상은 대표님! (짹짹)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영등포 타임스퀘어

한강에서 유람선 타기

배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우리가 출퇴근하며 지나쳤던 풍경과는 무언가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람선 후미에 모여 단체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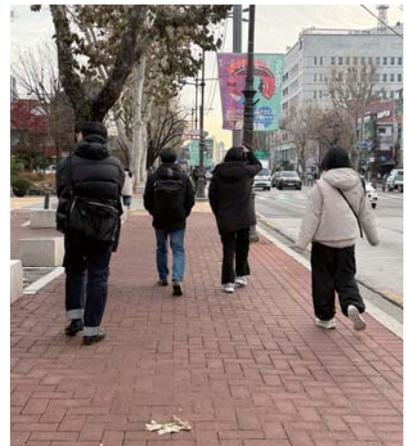


기다리던 점심시간,

한강이 한 눈에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뷔페를 즐겼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한 에너지도 충전 완료!

연극 <뷰티풀라이프> 관람

오후에는 혜화로 장소를 옮겨 연극을 관람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무대 위 이야기에 집중하는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를 남기며 조용하지만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소극장 가는 길

이번 Refresh Day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동료들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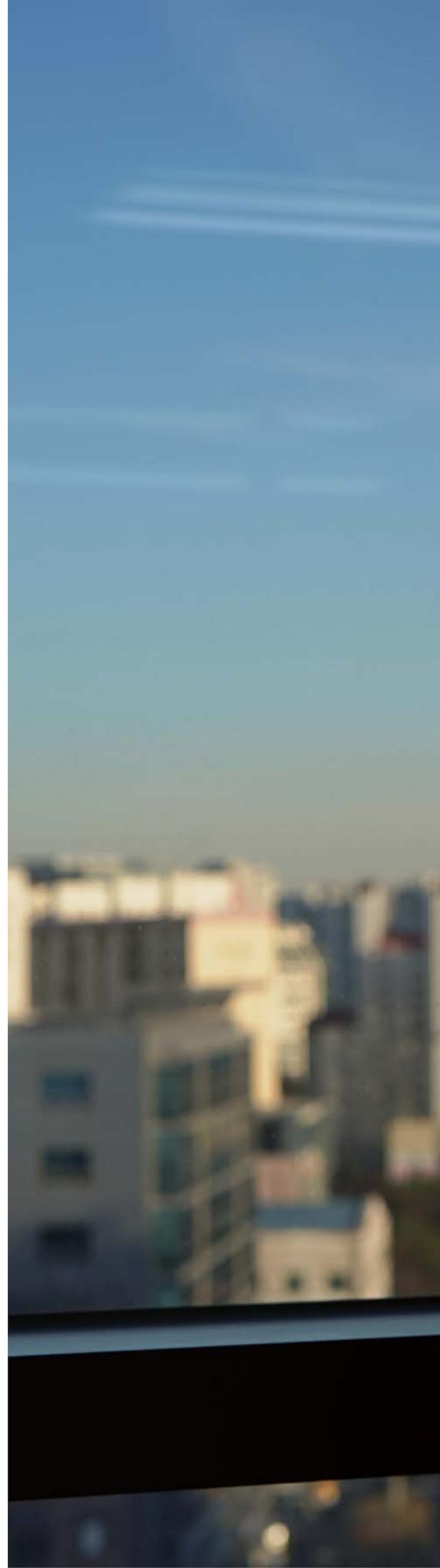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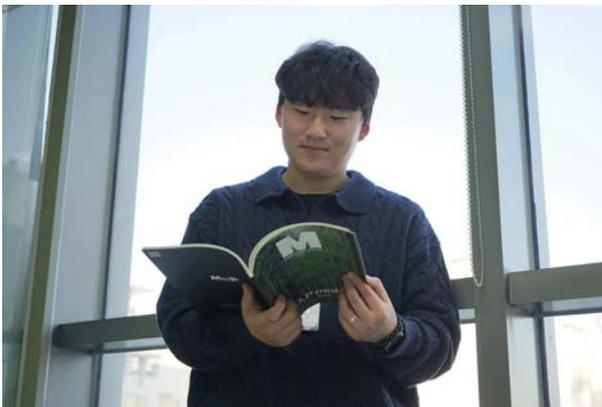
이날의 여유와 에너지가 앞으로의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M.O.P PEOPLE
M.O.P PEOPLE
M.O.P PEOPLE
M.O.P PEOPLE



Employee Spotlight

01 인터뷰: 응용소재사업본부 이문호 연구원







Interview

MOONHO LEE

응용소재사업본부 이문호 연구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낮선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각자는 자신만의 속도로 회사 생활을 배워갑니다.
이번 People 코너에서는 입사 1년차 이문호 연구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첫 출근의 긴장감부터,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의 소소한 변화들까지
신입사원의 시선으로 바라본 엠오피의 일상을 전합니다.

Design, Editor Jiwon Kim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3D 프린팅용 세라믹 슬러리 생산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응용소재사업본부의 이문호 연구원입니다.

Q. 입사 첫날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A. 입사 첫날은 마침 GMP 인증을 준비하던 시기여서, 저를 제외하고 모두가 굉장히 바빠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회사구나. 내가 진짜 사회에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출근이라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부사장님께서 직접 커피를 타주셨던 일이에요.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또 하나는 첫 출근에 정장을 입고 갔는데, 엠오피에서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들 재미있어하셨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Q. 입사 후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첫 회사이자 첫 출근이라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A.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실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낯설지만 설레는 기분이 함께 있었어요.

Q.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업무에는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대학원에서 비슷한 분야를 계속 경험해 온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진 수석님과 이 책임님께서 하나하나 차분히 잘 알려주신 덕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Q. 반대로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처음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아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차근차근 하나씩 하다 보니, 처음엔 낯설었던 서류들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적응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팀원분들과 윤 팀장님께서 처음부터 편하게 대해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셔서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팀 지원씨가 저의 다소 무리한(?) 아재개그를 잘 받아줘서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웃음)

Q. 엠오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A. 따뜻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 배려하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혼내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려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선배나 동료들과 지내면서 재밌었던 순간이 있었다면요?

A. 입사 후 진행된 리프레시 데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볼링도 치고, 연극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문래 사업장 분들뿐만 아니라 군포 사업장 분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Q.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서 “아, 이제 좀 적응했다”라고 느꼈던 계기가 있었나요?

A. 처음 입사하고 나서는 점심을 먹을 때마다 감동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감동이 사라졌을 때 “아, 이제 적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웃음)

Q.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생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부모님과 식사할 때 제가 먼저 카드를 낼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취업 전에는 슬쩍 눈치를 보곤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제가 살게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Q. 그렇다면 본인에게 생긴 변화가 궁금하네요. 출근 후나 퇴근 후에 스스로 리프레시하는 방법이 있나요?

A. 퇴근 후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운동을 가는 루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쉬면 몸이 바로 반응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풋살, 수영, 클라이밍 같은 운동을 하면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Q. 입사 후 약 1년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의 시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A.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Q. 1년차가 된 지금,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1년 동안 재밌게 잘 보냈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더 잘 지내보자"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엠오피 입사를 고민하고 있는 예비 지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A. 우리 회사가 모든 면에서 최고라서 무조건 지원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 이끌어주는 선배들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서 이곳에서 함께 즐거운 회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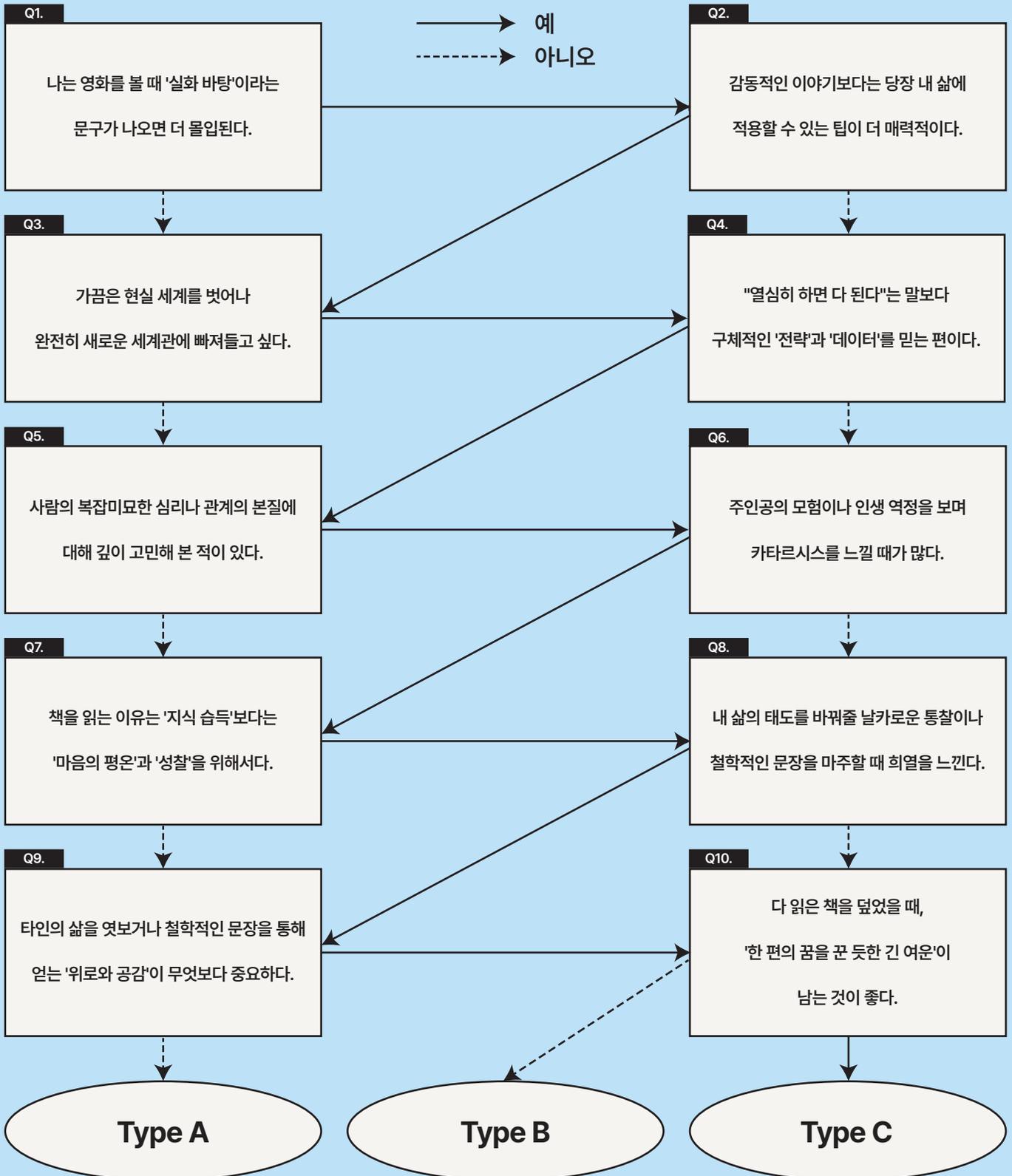
BREAK TIME
BREAK TIME
BREAK TIME
BREAK TIME





엠오피 '인생 책' 페어링

유난히 밤이 길어지는 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공기를 녹여줄 따뜻한 차 한 잔과
마음의 온도를 높여줄 완벽한 책 한 권의 '페어링'이 아닐까요?



Type A - 갓생러, 효율 지향 전략가형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세상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파악해 내 삶에 적용하는 '현실 파악 종결자'입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선호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마음의 근육을 키워,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서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추천 도서

-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부를 지키는 태도.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렛템 이론 (멜 로빈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강력한 멘탈 수업.

Type B - 영혼의 철학자, 문장 수집가형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고, 마음에 꽂히는 한 문장을 위해 수백 페이지를 넘기는 '사유의 탐험가'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세이와 인문학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날카로운 통찰이 됩니다.



추천 도서

-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독서.
- 불안 (알랭 드 보통):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차분히 짚어보며, 비교와 기대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책.

Type C - 서사 속의 다이버, 과몰입 장인형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세계관에 푹 빠져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는 '러닝타임 순삭' 독서가입니다. 뛰어난 공감 능력과 상상력을 가진 당신! 텍스트만으로 머릿속에 영화 한 편을 찍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루한 일상에 강력한 자극과 감동이 필요할 때 소설만한 처방전은 없죠.



추천 도서

- 프로젝트 헤일메리 (앤디 위어): 외계인과 친구가 될 준비 되셨나요? 과학적 상상력의 끝판왕.
- 모순 (양귀자): 삶의 모순을 깨닫는 법에 대하여. "인생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것."

맛따라 멋따라 계절따라 - <겨울 편>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는 그 계절만의 맛을 제대로 즐기는
'제철 코어'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신선한 순간, 가장 깊은 풍미를 가진 식재료를 찾아 떠나는
그 자체가 일상 속 확실한 행복이 되곤 하니까요.

올해 겨울, 식탁 위에 가장 빛나는 재료들은 무엇일까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달콤해지는 채소들부터
겨울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까지.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식재료를 소개합니다.

방 어



겨울이 되면 지방이 올라 가장 맛있어지는 방어!
차갑고 깊은 겨울 바다에서 잡힌 방어는 단단한 식감과
기름진 살의 고소함이 더해져 깔끔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추천 맛집
바다회사랑 — '서울 3대 방어 맛집'으로 불리는 방어회 성지.
노량진 청양수산 — 다양한 구성으로 방어회를 즐길 수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내 횃집.

겨울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굴은 아연, 아르기닌, 글리코겐이 풍부해 면역력과
스테미나 향상에 큰 도움을 주죠. 또한 탱글한 식감과 깊은 감칠맛, 바다의
향을 담은 제철 굴은 생굴, 굴찜, 굴국밥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 맛집
만배아리랑 본점 — 가브리살 보쌈집으로 제철 굴이 올라가는 굴보쌈과 서비스 칼국수 유명.
왕십리 굴과찜사랑 — 왕십리역 인근, 유튜브에 소개되며 굴찜과 굴요리가 인기인 곳.

굴





무

겨울 무는 여름보다 당도가 높고 결이 단단해 국물 요리에서 더욱 깊고 시원한 맛을 냅니다. 특히 무조림이나 생채처럼 식감이 살아나는 조리법에서는 겨울 무 특유의 달큰함이 더욱 돋보이죠. 속이 딱 찬 겨울 무는 겨울 식탁을 든든하게 채우는 제철 코어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과일, 귤! 한겨울에 수확되는 귤은 과육이 탄탄하고 당도가 높으며, 껍질을 벗기는 순간 은은한 향이 공간 가득 퍼져 겨울만의 정취를 더합니다. 최근 SNS에서는 귤을 활용한 디저트와 콘텐츠가 유행하며 겨울 미식의 대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귤

과 메 기



포항의 겨울을 대표하는 별미인 과메기는 찬바람에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독특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향은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맛으로, 감·마늘·배추·초장 등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답니다.

추천 맛집

사당 영일만 — 2대째 이어오는 블루리본 맛집, 과메기 뿐만 아니라 막회와 물회도 유명한 음식점.
충무로 영덕회식당 — 충무로 일대에서 막회와 함께 과메기로 유명한 노포 분위기의 맛집.

시 금 치

겨울 시금치는 일반 시금치보다 당도가 높고 향이 짙어 같은 조리법이라도 더욱 깊은 맛을 냅니다. 또한 비타민 A와 철분이 풍부해 겨울철 피로 회복과 활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Crossword Puzzle (십자말 풀이)

엠오피 관련 정보부터 2025년 최신 이슈까지—
정답을 맞히며 하반기를 가볍게 돌아봅시다!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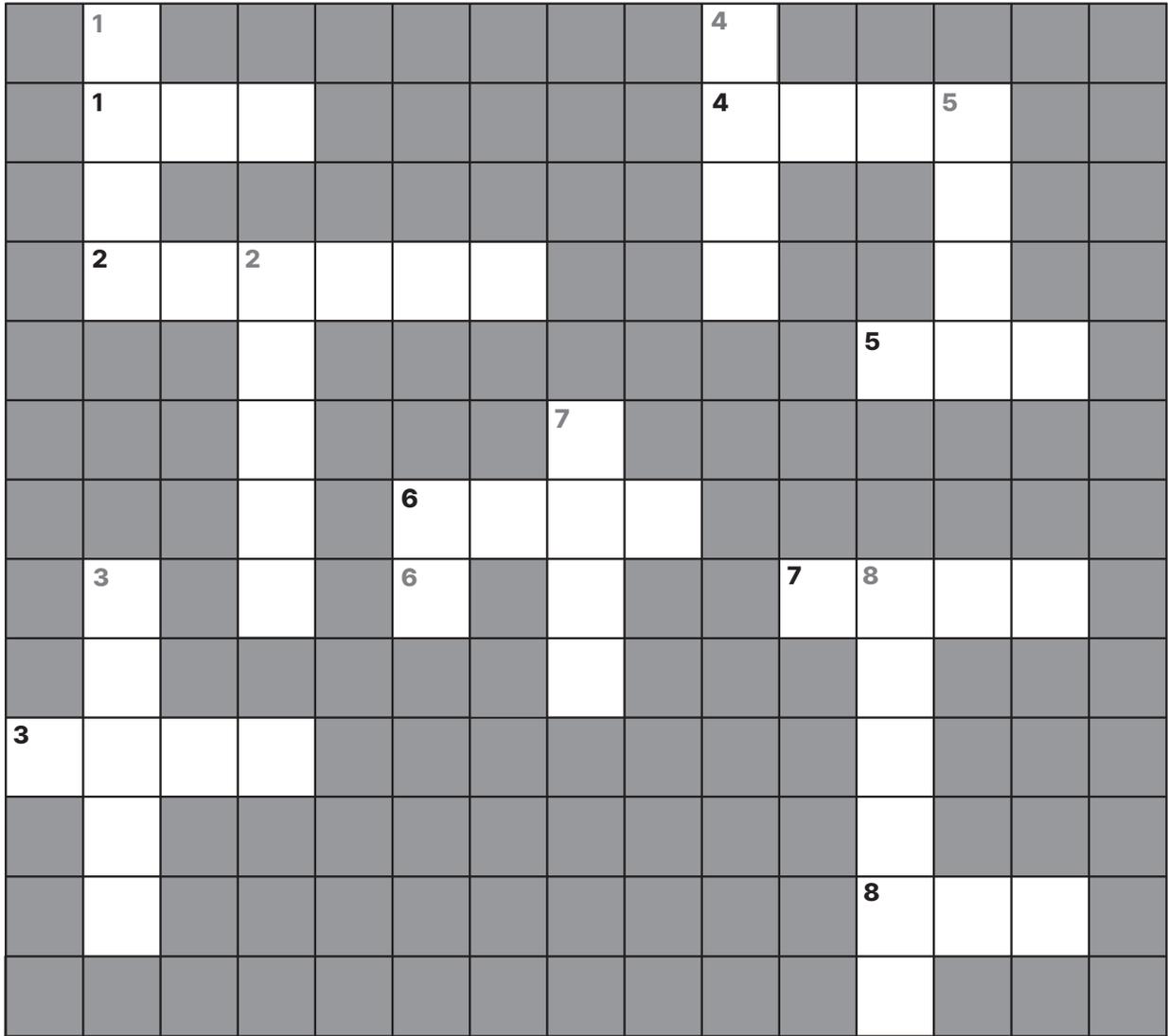
- 1 금연을 결심하게도, 다시 고민하게도 만드는 담배 속 그 성분.
- 2 2025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 3 그래픽도, AI도, 주식시장도 흔드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 4 모두가 조용히 바라고 있는, '조금 천천히 늙자'는 개념.
- 5 엠오피 응용소재사업본부 팀장님의 성함.
- 6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사자성어.
- 7 AI 혁신을 이끄는 오픈AI의 수장.
- 8 "You'll Never Walk Alone"을 외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강팀.

세로

- 1 본래는 잡식성을 뜻하지만, 소비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는 잡식형 소비자를 일컫는 표현.
- 2 경기의 승패가 이미 기울어진 뒤 비교적 느슨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스포츠 용어.
- 3 고굴절 코팅을 위한 엠오피의 브랜드. CLAVI(열쇠) + LUX(빛)의 조합
- 4 바닷속을 지나 육지와 육지를 잇는 구조물.
- 5 꽃과 나비를 함께 그린 전통 회화의 한 형태.
- 6 케데헌 세계관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문자 그대로 '영혼의 문' 또는 '영혼으로 만든 문'을 뜻하는 설정.
- 7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조정래 작가의 장편소설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곳.
- 8 마늘과 올리브오일을 기본으로 만드는 파스타.

MOP CROSSWORD

Break Time 03



완성한 퍼즐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jwkim@mop3d.co.kr) 또는 PS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3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사보 십자말 풀이 정답>





Editor's Note

안녕하세요. 엠오피 홍보팀입니다.

2025년 하반기 사보가 무사히 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호의 커버 이미지는 상반기 사보의 푸르른 숲과 대비되는 광활한 설산을 배경으로 선정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풍경을 향해 나아가는 스키어들의 모습에는, 익숙한 영역을 넘어 미지의 가능성을 향해 탐험을 이어가는 태도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엠오피의 현재를 함께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사보 곳곳에는 십자말 퀴즈 등 소소하게 즐기실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호에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엠오피 홍보팀 드림



MOPMATERIALS.COM T. (+82) 6952 3091
COPYRIGHT 2017-2026 M.O.P Co., Ltd
ALL RIGHTS RESERVED